

고등학교 문학은

작품 감상 방법도 다양해지고
용어와 개념도 어려워집니다.

문학을 잘하려면 먼저 시, 소설, 수필 등
다양한 갈래의 작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진 문학 개념어와
어휘를 충분히 공부해야 합니다.

자이스토리는
문학의 모든 지문과 문제 출제 의도를 파악해
작품 갈래별로 적용할 수 있는 독해 공식을 만들고
대표 문제 유형에 대한 문제 풀이 특강을 수록했습니다.

또한 어휘+개념어 총정리를 활용해
어휘와 개념어를 바로바로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자이스토리와 함께한다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때쯤
여러분은 국어 **1**등급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27일]

Day	문항 번호	틀린 문제 / 헛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01~12		월	일	월	일
2	13~24		월	일	월	일
3	25~36		월	일	월	일
4	37~46		월	일	월	일
5	47~59(+어휘)		월	일	월	일
6	B 01~11		월	일	월	일
7	12~28		월	일	월	일
8	29~41		월	일	월	일
9	42~58		월	일	월	일
10	59~71		월	일	월	일
11	72~86		월	일	월	일
12	87~99		월	일	월	일
13	100~113(+어휘)		월	일	월	일
14	C 01~12		월	일	월	일
15	13~27		월	일	월	일
16	28~42		월	일	월	일
17	43~57		월	일	월	일
18	58~68		월	일	월	일
19	69~79(+어휘)		월	일	월	일
20	D 01~12		월	일	월	일
21	13~27		월	일	월	일
22	28~41		월	일	월	일
23	42~55		월	일	월	일
24	56~70		월	일	월	일
25	71~85(+어휘)		월	일	월	일
26	E 01~10		월	일	월	일
27	11~21(+어휘)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으며,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노승연 서울 수명고등학교
이동훈 진천 진천고등학교

이세영 수원 수일고등학교
제민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최슬지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한혜령 서울 서라벌고등학교

[특별 감수진]

강호국 화성 한백고등학교
김명희 광명 충현고등학교
김성옥 울산 신정고등학교
김진수 서울 서울외국어고등학교

문지현 서울 문일고등학교
박정원 포항 포항제철고등학교
손유정 대구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이용진 용인 문정중학교

임현정 시흥 신천초등학교
정소진 남양주 판곡중학교
최한나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황희준 서울 구원고등학교

[감수진]

강민성 대구 봉곡어학원
강병석 서울 옴바른학원
강수연 서울 목동국어하기좋은날
강수진 진도 강샘국어
강신석 양평 우리동네국어 쌤
강연구 춘천 페르마 학원
강한길 서울 대치마스터마인드
구찬미 의정부 맨투맨학원
금정원 대구 델타학원
김가현 전주 신흥고등학교
김낙광 부산 직관과통찰국어
김대희 부산 메디프리언스학원
김도연 서울 사과나무학원
김류 광주 비전언어논술학원
김명준 서울 강남하이퍼스트학원
김미옥 대구 틀을잡는국어학원
김상연 창원 사파고등학교
김서령 광주 서령국어
김성구 용인 일등공신
김성훈 대구 김성훈국어학원
김승훈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김요셉 서울 대치SEP국어
김유라 성남 분당두각학원
김지안 화성 '샘이깊은물'국어교습소
김진석 광주 도완국어학원
김태현 인천 연해담국어학원

김혁민 서울 자양동명장학원
김현 서귀포 (주)서울탐텐학원
김현정 경주 해운논술
김현진 인천 넥스아이과학학원
김혜리 안양 안양여자고등학교
김혜빈 인천 국어학습컨설턴트
김휘승 서산 고수학원
박경환 대구 영남고등학교
박대근 서울 티스과학전문학원
박선아 부산 대신이룸학원
박성혜 서울 슛컷학원, 인천 최룡선국어학원
박수영 서울 은평대치국어학원
박연하 제주 하이언스
박영민 고양 이지베스트학원
박유빈 세종 국어의보람
박유진 화성 파란국어전문학원
박윤선 광주 규장각국어학원
박정선 서울 송파가온누리국어학원
박현정 대구 더나은국어교습소
백법렬 서울 강수학과국어학원
성열호 평택 신한고등학교
송지호 파주 윤정크림스교육
송희철 울산 꿈꾸는래학원
신진우 서울 목동강원화국어학원
심수현 서울 메가스터디 러셀
양준빈 성남 분당참토론국어입시학원

오성민 서울 입시비책
유영삼 대전 여름수국어전문학원
유현주 부산 부산대유선생국어
윤경미 대구 모량국어학원
윤영재 대구 애플수학과과학학원
이석진 경남 경남교육청과학교육원
이슬 익산 프라임국어수학학원
이승준 창원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이흥진 서울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임미정 화성 병점나눔과학
전현표 부산 제일학원
정경철 고창 자유고등학교
정수진 부산 화명미래탐구학원
정지윤 전주 지양과지향국어학원
정희진 광명 소하고등학교
조성복 양주 수학발전소고등관
조정희 청주 조정희국어논술
채옥희 광주 본국어
천정아 평택 이엠원학원
최보나 서울 탐국어학원
최성진 서울 대치SKY3.0학원
최현애 화성 플랜A입시학원
최혜정 광주 이루다전문학원
한솔기 세종 너희가꽃이다입시학원
황보성진 천안 천안불당고등학교
황동명 부산 황동명과학고교습소

차 례

A 현대시 13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4

- 천수답(박목월), 민들레꽃(이형기)

1 성찰이나 의지가 드러나는 시 18

- 적막한 식욕(박목월), 찬밥(문정희)
- 성호부근(김광균), 논두렁에 서서(이성선)
- 소년(윤동주), 나무의 꿈(손택수)
-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그날 나는 슬픔도 배물렀다(함민복)
- 광야(이육사), 울타리 밖(박용래)
- 분수(김춘수), 틈, 사이(북호근)
-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신석정), 백두산을 오르며(정호승)
-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신경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김종삼)

2 추억과 회상, 그리움을 담은 시 31

- 고향의 천정 1(이성선), 밥물 눈금(손택수)
- 성탄제(김종길), 수의 비밀(한용운)
- 추억에서(박재삼), 담양장(최두석)
- 고야(백석), 겨울산에 가면(나희덕)

3 자연과 생명, 사랑을 그린 시 38

- 위로(윤동주), 달밤(황동규)
- 청산백운도(신석정), 새 옷 입는 법(문정희)
- 춘설(정지용), 첫사랑(고재중)
- 봄(김광섭), 겨울 들판을 거닐며(허형만)
- 사개 틀린 고향의 툇마루에(김영랑), 따뜻한 달걀(정진규)
- 초록 기쁨 - 봄숲에서(정현중), 오월(김영랑)

어휘 + 개념어 TEST 47

B 고전 시가 + 시 복합 49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50

- 면앙정가(송순), 가재미·나귀(백석)

1 고전 시가 54

- 훈민가(정철), 복선화음록(작자 미상)
- 어부사시사(윤선도), 초당춘수곡(남석하)
- 유민탄(어무적), 장육당육가(이별)
- 남은 다 자는 밤에(송이), 장상사(성현), 상사곡(박인로)
-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김기택), 두암육가(김약련)

2 고전 시가 + 고전 수필 64

- 십 년을 경영하여(송순), 농가구장(위백규), 접목설(한백겸)
- 태산이 높다 하되(양사언), 사청사우(김시습), 이육설(이규보)
- 감노래(작자 미상), 꽃도리 저 꽃도리~(작자 미상), 어부(이육)
- 속미인곡(정철), 주몽설(권근)
- 황계사(작자 미상), 봄의 단상(이규보)
- 합강정가(작자 미상), 귀전록(이현보), 조설(남구만)
- 노부탄(순천 김 씨), 청학동기(이인로)

3 고전 시가 + 현대 수필 80

- 매화사(안민영), 향기 있는 사람(신석정)
- 도산십이곡(이황), 인형과 인간(법정)
- 오우가(윤선도), 꽃 출석부 1(박완서)
- 훈민가(정철), 관찰아(장영희)
- 설월곡(이황), 매화(권섭), 세한도(목성균)
- 강호사시사(맹사성), 상춘곡(정극인), 입춘(백석)
- 십육영(권섭), 출새곡(조우인), 태안사 가는 길에서(공선옥)
- 표해가(이방익), 여행(김기림)
- 고공답주인가(이원익), 돌탑과 잔돌(문태준)
- 일민가(윤이후), 화춘의장(이효석)

4 현대시 + 수필 103

- 눈 오는 지도(윤동주), 만나는 법(김종철), 떠 있는 삶(정약용)
- 황혼(오장환), 모래(이형기), 비슷한 얼굴-계수님께(신영복)
- 삭구구성(김소월), 당산(이성복), 길의 열매 집을 매단 골목 길이어(함민복)

어휘 + 개념어 TEST 111

C 현대 소설 113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14

- 메아리(오영수)

1 광복 이전(~1945년) 118

- 복덕방(이태준)
- 땡뻐(김유정)
- 농부 정도룡(이기영)

2 광복 이후 ~ 산업화(1960년대) 124

- 흑산도(전광용)
- 맹순사(채만식)

3 경제 성장과 그 이면(1970년대) 129

- 귀향 연습(이청준)
- 몽기미 풍경(송기숙) • 선학동 나그네(이청준)

4 민주주의의 발전(1980년대) 136

- 달팽 씨의 두 번째 죽음(전상국)
- 당제(송기숙)

5 개인주의와 세계화(1990년대) 140

- 산 너머 남촌(이문구)
-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박완서)
- 하얀 배(윤후명)
-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김소진)
- 리기다소나무 숲에 갔다가(김연수)
-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윤홍길)
- 도도한 생활(김애란) • 버들떡(한승원)
- 투명 인간(성석제) •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이기호)
- 먼 바다(공선옥)

어휘 + 개념어 TEST 164

동아리 소개 / 서울대 TNT 166



D 고전 소설 167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168

- 왕시전(작자 미상)

① 영웅 · 군담 소설 172

- 장국진전(작자 미상)
- 신유복전(작자 미상)
- 정각록(작자 미상)
- 태원지(작자 미상)
- 최현전(작자 미상)
- 석화룡전(작자 미상)
- 임호은전(작자 미상)
- 정비전(작자 미상)
- 금방울전(작자 미상)
- 최고운전(작자 미상)
- 세경본풀이(작자 미상)

② 가정 · 애정 소설 197

- 화산기봉(작자 미상)
- 송부인전(작자 미상)
- 영영전(작자 미상)
- 속향전(작자 미상)
- 서해무릉기(작자 미상)
- 매화전(작자 미상)

③ 판소리계 소설 211

- 이춘풍전(작자 미상)
- 춘향전(작자 미상)
- 토공전(작자 미상)
- 흥부전(작자 미상)
- 수궁가(유성준 창본)

어휘 + 개념어 TEST 222

동아리 소개 / 고려대 KUAAA 224

E 극 문학 + 소설 복합 225

지문 분석 특강 + 문제 풀이 특강 226

- 그제 아닌데(이미경)

① 화곡, 시나리오 230

- 대장금(김영현)
- 말아톤(정윤철, 윤진호, 송예진)
- 뿌리 깊은 나무(김영현, 박상연)
- 보석과 여인(이강백)

② 극 + 소설 복합 238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원작 · 박종원 각색)
- 임진록(작자 미상), 명량(전철홍 · 김한민)

어휘 + 개념어 TEST 244

어휘 총정리

문제를
풀면서
어휘+개념어
실력 보충

246

빠른 정답 찾기

264



독해 공식+지문·문제 특강으로 쉽고 빠르게 국어 1등급 완성!

1 문학 갈래별 독해 공식

- 문학 작품을 빠르고 쉽게 분석하기 위해 작품을 갈래별로 구분하고, 갈래별 특징에 맞게 독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 현대시,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고전 소설, 극 문학, 수필의 독해 공식으로 국어 문학의 모든 지문을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문학 갈래 쉽게 읽는 법: 갈래별로 작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학습의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고전 시가+시 복합

시 복합은 실용문과 현대시, 고전 시가, 수필이 한 세트로 묶여 출제됩니다.

*** 시 복합 독해 공식 적용하기**

① 설명문 혹은 <보기> 먼저 읽기 ② 독해 공식에 따라 적용 읽기 ③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파악하기

[B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22 실시 3월 학평 34~37]

(가) 기아를 금히 타고 숲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데
녹양에 우는 **피리도 고대** **겨워하는**구나
나무를 우거져 녹음이 짙어질 때
가다란 난간에 긴 줄을 내려 버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원시의 깊은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누렇게 익은 바는 또 어찌 넓은 들에 펼쳐졌는가
⑤ **이부 피리도** **홀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문철개는
조물로 아난스러워 발설로 꾸며 내니
경궁대"와 육해온산"이 는 아래 벌었구나
천지가 융성하여 간 **태마다 승경(勝景)**이로다
연간 세상 마나와도 내 몸이 쉽다

(나) **동해 가까운 거리로 와서 나는 가계미와 가장 친하다.** **쟁이,**
문어, 고둥이, 평해, 횡대..... **생선이 많지만 모두 한두 끼에**
나를 물리게 하고 만다.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계미만이 흰발과 빨간 고추장과 함께 가난하고 쓸쓸한 내
상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 나는 이 가계미를 처음 심 전
하나에 빨가웃"씩 되는 것 여섯 마리를 받아 들고 왔다.
다들부터는 할미가 두 무릎 마른 개에 이십오 천씩에
사오시는데 큰 가계미보다도 잔 것을 내가 좋아해서 모두
손깎만큼 한 것들이다. 그동안 나는 한 달로 이 고을을
떠났다 와서 오랜만에 내 가계미를 찾아 생선장으로 갔더니
설치하게도 이 물신"은 보이지 않았다. 유력 팔할 초상이
되어서야 이내 친한 것이 온다고 한다. ㉠ 나는 어서 그에게
와서 우리를 흰발과 고추장과 다 만나서 아깝지않 기뻐하게

3 문제 풀이 특강으로 대표 문제 유형 정복!

- 갈래별로 대표적인 문제 유형을 선별하고, 문제 유형에 따른 풀이 방법을 특강으로 정리했습니다.
- 문제 유형별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문제 풀이 특강

C01 사건과 갈등 파악하기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을 감상하기

[① 66% ② 7% ③ 9% ④ 8% ⑤ 7%]

원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묻고 있으므로 선택지에 언급된 내용을 글에서 찾아 파악한다.

① **동독의 아내는** 전주에서 장사에 다녀왔지만, 본전보다 낮게 팔아와 팔아서 태운 채 오리라 속해를 보게 되었다.

따라서 답은 ① **동독의 아내는 장사를 나서 본지만 손해를 보았다**이다.

② 동독은 도시에서 물가나듯이 산골로 온 자신의 자리에 패배감을 느끼지만 이를 아내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함께 고생하고 있는 아내에게 축문함과 미더움을 느낀다.

③ 동독과 아내는 일거위, 강가재, 쟁이, 호미, 땀장, 소금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여 산골로 갔다. 이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동독은 장사에서 혼자 뒷일을 맡고 다녔고, 박 노인을 알게 된 것은 지리산으로 거처를 옮긴 후이다.

⑤ 동독은 양식이 얼마가 왔으면 좋긴 하겠지만 말했지만 그에 대한 확신은 없었으며, 별도로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

특강

○ **사건과 갈등 파악하기 유형 - 풀이 순서**

① 인물에 생김, 행동(행) 찾기
② 선택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C03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보기>를 먼저 읽고, 작품을 감상하기

[① 5% ② 50% ③ 7% ④ 30% ⑤ 6%]

<보기>에 드러난 '산속'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여 적용해서 미와 관련된 부분을 찾는다. 그 후 작품과 선택지를 연관 지어 파악한다.

물결에 안정과 일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	나를 깨서 들고 새끼 되기를 마련하는 등 도시에서 살 때보다 물결에 의지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농사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 인물들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함.
새로운 구상들을 품는 열린 공간	동독 아내가 홀로 살고 있는 양식이 얼마를 산속으로 데리고 와 함께 살고자 함.

① 동독 부부는 도시에서 궁핍한 삶을 벗어날 수 없어 고향으로 향했지만, 이러한 도시의 삶과 피난살이는 동독 부부가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든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② 동독 내외는 '오지근조'의 추억을 보고 자신들이 영혼 위기가 과거 사람들이 살았던 곳임을 알고 자신들도 이곳에서 영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정신의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물질적 안정을 얻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답은 ② **동독 내외가 '오지근조' 추억들을 보면서 가슴이 설레고 반가워하는 장면에서 산속이 정신적 위안과 물질적 안정을 주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은 것이다.

③은 생김이 태지를 사고 싶어하자 박 노인과 동독이 기꺼이 협력해 태지를 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 지문 분석 특강으로 독해 공식 적용 훈련

- 갈래별 독해 공식을 기출문제에 실제 적용하며 작품을 독해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 빈칸 채우기 문제를 통해, 지문 내용과 관련된 중요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특강

1번 먼저 제목과 문제의 <보기>를 읽고 지문의 내용을 파악한다.

- 제목: (가)에서는 천수갑(天水甲)에 대해서, (나)에서는 민들레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문제 <보기>: (가)와 (나)에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A03 <보기> 분석

- (가) 인연의 유망성에 대한 인식 →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는 소신과 그에 대한 자지
- (나) 민들레꽃을 문예로 과결하지 않고 하루에 당하는 존재로 바라봄. +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

*** 1번과 3번에서 '아래와', 2번과 4번에서 '알려준다', '나' 새끼와, 3번과 4번에서 '그런데'를 반복하여 문장을 형성하고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1번의 '백이'라고 있으나, 2번의 '백이'라고 있으나, 3번의 '누군' 한 명성 / 단락을 사나, 4번의 '알' 살고 웃 살고가 어딘가에서 **살아남**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 4번의 '수천'이라는 감성 사어로 / 별다른 별다른 거서 철학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를 사용하여 시작 배경을 묘사하고 시작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4번의 그 하늘의 길이 어서 세상 열사로 마무리하면서 시작 여운을 남기고 있다.

*** (가)의 핵심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해 본다.**

1번과 3번의 화자 <나> 새끼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 화자	2번과 4번의 화자 <아래>
-------------------	-----------------------	-----------------

(가)의 화자 <나> 새끼는 '아래'에게 자신이 깨달은 긍정적인 고전하게 사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고, 화자 <아래>는 '나' 새끼의 말에 동의와 자지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가)의 **주제**는 '긍정적이고 근면하게 사는 삶의 태도'이다.

2번 (나)에 독해 공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

1번 화자 중심 찾기

(나)의 화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나)의 화자는 '민들레꽃을' 관찰하여 민들레꽃의 생명력과 내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 중심 대상을 '민들레꽃'이다.

4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 내신+학평 대비 기출문제: 최신 고1 학력평가 문항으로 완벽하게 훈련하면 수능 국어 1등급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대시: 주제별로 분류
- 고전 시가: 시 형식으로 분류
- 현대 소설: 시대순으로 분류
- 고전 소설: 주제별로 분류
- 제한 시간: 수능 실전에서 한 지문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소요 시간

● **출처 표시**

예) **2024 실시 3월 학평(고1):** 2024년 3월에 실시한 고1 학력평가

● **난이도:** ☆ **1등급 대비**, ☆☆☆ - 상, ☆☆☆ - 중, ☆☆☆ - 하



문항 배열 및 구성 [기출 357문항, 어휘+개념어 테스트 290문항]

① 최신 5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 9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우수 문항 선별 수록 357문항

- 최신 5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
- 내신 · 학력평가 · 수능의 출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9개년 학력평가 기출문제에서 우수 문항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② 최신 유형에 대비한 갈래별 단원 구분

- 최신 학력평가 문학 유형을 고려하여 현대시는 주제별, 현대 소설은 시대별, 고전 시가, 시 · 수필 복합 세트, 극 · 소설 복합 세트는 세부 갈래별로 단원을 구분하였습니다.

③ 어휘+개념어 총정리(표제어 643개)

- 지문과 문제 속 어휘와 개념어의 뜻을 모두 모아 예문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 지문을 읽고 문제 풀이를 할 때 모르는 어휘와 개념어가 있다면, 어휘+개념어 총정리에서 그 뜻과 용례를 확인해 보세요.

④ 문학 독해력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어휘+개념어 테스트 수록 (290문항)

- 갈래별 빈출 주요 어휘를 점검할 수 있는 ‘어휘 + 개념어 TEST’를 단원마다 구성하였습니다.

[국어 문학 기본 문항 구성표] – 고1 학력평가 문학 문항

실시 연도	3월	6월	9월	11월	문항 수	비고
2024	15	15	15		45	• 최신 5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기출 전 문항 수록 • 9개년 고1 학력평가 문학 기출 우수 문항 선별 수록
2023	15	15	15	15	60	
2022	15	15	15	15	60	
2021	15	15	15	15	60	
2020	15	15	15	15	60	
2019	10	8	12	15	45	
2018	3	3	6	11	23	
2017	2				2	
2016				2	2	
총 문항 수					357	



수록 작품 찾아보기 (최신 기출문제순 수록)

〈현대시〉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4 실시 9월 학평 26~28	A 41~43	위로(윤동주)
2024 실시 9월 학평 26~28	A 41~43	달밤(황동규)
2024 실시 6월 학평 43~45	A 04~06	적막한 식욕(박목월)
2024 실시 6월 학평 43~45	A 04~06	찬밥(문정희)
2024 실시 3월 학평 16~20	B 19~23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김기택)
2023 실시 11월 학평 39~41	A 44~46	청산백운도(신석정)
2023 실시 11월 학평 39~41	A 44~46	새 옷 입는 법(문정희)
2023 실시 9월 학평 27~29	A 01~03	천수답(박목월)
2023 실시 9월 학평 27~29	A 01~03	만들레꽃(이형기)
2023 실시 6월 학평 43~45	A 10~12	소년(윤동주)
2023 실시 6월 학평 43~45	A 10~12	나무의 꿈(손택수)
2023 실시 3월 학평 16~18	A 28~30	고향의 천정 1(이성선)
2023 실시 3월 학평 16~18	A 28~30	밥물 눈금(손택수)
2022 실시 11월 학평 22~24	A 50~52	봄(김광섭)
2022 실시 11월 학평 22~24	A 50~52	겨울 들판을 거닐며(허형만)
2022 실시 9월 학평 43~45	A 16~18	광야(이육사)
2022 실시 9월 학평 43~45	A 16~18	울타리 밖(박용래)
2022 실시 6월 학평 29~31	A 13~15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2022 실시 6월 학평 29~31	A 13~15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함민복)
2022 실시 3월 학평 31~33	A 53~55	사개 틀린 고향의 뒷마루에(김영랑)
2022 실시 3월 학평 31~33	A 53~55	따뜻한 달걀(정진규)
2021 실시 11월 학평 25~27	A 19~21	분수(김춘수)
2021 실시 11월 학평 25~27	A 19~21	틈, 사이(북효근)
2021 실시 9월 학평 27~29	A 47~49	춘설(정지용)
2021 실시 9월 학평 27~29	A 47~49	첫사랑(고재중)
2021 실시 6월 학평 43~45	A 31~33	성탄제(김종길)
2021 실시 6월 학평 43~45	A 31~33	수의 비밀(한용운)
2021 실시 3월 학평 31~33	A 07~09	성호부근(김광균)
2021 실시 3월 학평 31~33	A 07~09	논두렁에 서서(이성선)
2020 실시 11월 학평 25~28	A 37~40	고야(백석)
2020 실시 11월 학평 25~28	A 37~40	겨울산에 가면(나희덕)
2020 실시 9월 학평 21~25	B 100~104	눈 오는 지도(윤동주)

2020 실시 9월 학평 21~25	B 100~104	만나는 법(김종철)
2020 실시 6월 학평 29~32	A 56~59	초록 기쁨-봄숲에서(정현중)
2020 실시 6월 학평 29~32	A 56~59	오월(김영랑)
2020 실시 3월 학평 43~45	A 34~36	추억에서(박재삼)
2020 실시 3월 학평 43~45	A 34~36	담양장(최두석)
2019 실시 11월 학평 30~32	A 22~24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신석정)
2019 실시 11월 학평 30~32	A 22~24	백두산을 오르며(정호승)
2019 실시 9월 학평 34~38	B 109~113	삭주구성(김소월)
2019 실시 9월 학평 34~38	B 109~113	당신(이성복)
2018 실시 11월 학평 38~41	B 105~108	황혼(오장환)
2018 실시 11월 학평 38~41	B 105~108	모래(이형기)
2018 실시 9월 학평 43~45	A 25~27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신경림)
2018 실시 9월 학평 43~45	A 25~27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김종삼)

〈고전 시가〉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4 실시 9월 학평 38~42	B 46~50	합강정가(작자 미상)
2024 실시 9월 학평 38~42	B 46~50	귀전록(이현보)
2024 실시 6월 학평 35~39	B 77~81	강호사시가(맹사성)
2024 실시 6월 학평 35~39	B 77~81	상춘곡(정극인)
2024 실시 3월 학평 16~20	B 19~23	두암육가(김약련)
2023 실시 11월 학평 35~38	B 51~54	노부탄(순천 김 씨)
2023 실시 9월 학평 16~20	B 82~86	십육영(권섭)
2023 실시 9월 학평 16~20	B 82~86	출새곡(조우인)
2023 실시 6월 학평 33~37	B 72~76	설월죽(이항)
2023 실시 6월 학평 33~37	B 72~76	매화(권섭)
2023 실시 3월 학평 23~27	B 91~95	고궁답주인가(이원익)

2022 실시 11월 학평 34~37	B 96~99	일민가(윤이후)
2022 실시 9월 학평 26~29	B 68~71	훈민가(정철)
2022 실시 6월 학평 32~35	B 38~41	속미인곡(정철)
2022 실시 3월 학평 34~37	B 01~04	면양정가(송순)
2021 실시 11월 학평 42~45	B 87~90	표해가(이방익)
2021 실시 9월 학평 34~37	B 55~58	매화사(안민영)
2021 실시 6월 학평 38~42	B 24~28	십 년을 경영하여(송순)
2021 실시 6월 학평 38~42	B 24~28	농가구장(위백규)
2021 실시 3월 학평 38~41	B 59~62	도산십이곡(이황)
2020 실시 11월 학평 39~42	B 05~08	훈민가(정철)
2020 실시 11월 학평 39~42	B 05~08	복선화음록(작자 미상)
2020 실시 9월 학평 29~31	B 09~11	어부사시사(윤선도)
2020 실시 9월 학평 29~31	B 09~11	초당춘수곡(남석하)
2020 실시 6월 학평 42~45	B 29~32	태산이 높다 하되(양사언)
2020 실시 6월 학평 42~45	B 29~32	사청사우(김시습)
2020 실시 3월 학평 22~26	B 63~67	오우가(윤선도)
2019 실시 11월 학평 38~41	B 42~45	황계사(작자 미상)
2019 실시 9월 학평 31~33	B 12~14	유민탄(어무적)
2019 실시 9월 학평 31~33	B 12~14	장육당육가(이별)
2019 실시 6월 학평 41~45	B 33~37	잠노래(작자 미상)
2019 실시 6월 학평 41~45	B 33~37	꿇도리 저 꿇도리~(작자 미상)
2018 실시 11월 학평 29~32	B 15~18	남은 다 자는 밤에(송이)
2018 실시 11월 학평 29~32	B 15~18	장상사(성현)
2018 실시 11월 학평 29~32	B 15~18	상사곡(박인로)

〈현대 소설〉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번호	작품명(작가명)
2024 실시 9월 학평 29~32	C 76~79	먼 바다(공선옥)
2024 실시 6월 학평 40~42	C 01~03	메아리(오영수)
2024 실시 3월 학평 25~28	C 32~35	달팽 씨의 두 번째 죽음(전상국)
2023 실시 11월 학평 31~34	C 13~16	흑산도(전광용)
2023 실시 9월 학평 43~45	C 21~23	귀향 연습(이청준)
2023 실시 6월 학평 26~28	C 47~49	하얀 배(윤후명)
2023 실시 3월 학평 34~37	C 58~61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윤홍길)
2022 실시 11월 학평 30~33	C 24~27	몽기미 풍경(송기숙)
2022 실시 9월 학평 35~38	C 69~72	투명 인간(성석제)
2022 실시 6월 학평 41~45	E 13~1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2022 실시 3월 학평 38~41	C 39~42	산 너머 남촌(이문구)
2021 실시 11월 학평 16~19	C 28~31	선학동 나그네(이청준)
2021 실시 9월 학평 20~23	C 43~46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박완서)
2021 실시 6월 학평 26~28	C 04~06	복덕방(이태준)
2021 실시 3월 학평 34~37	C 62~65	도도한 생활(김애란)
2020 실시 11월 학평 43~45	C 66~68	버들댁(한승원)
2020 실시 9월 학평 26~28	C 73~75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이기호)
2020 실시 6월 학평 33~36	C 50~53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김소진)
2020 실시 3월 학평 27~30	C 54~57	리기다소나무 숲에 갔다가(김연수)
2019 실시 11월 학평 21~24	C 17~20	맹순사(채만식)
2019 실시 3월 학평 25~27	C 36~38	당계(송기숙)
2018 실시 11월 학평 26~28	C 10~12	농부 정도롱(이기영)
2018 실시 6월 학평 24~26	C 07~09	땡별(김유정)

〈고전 소설〉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4 실시 9월 학평 43~45	D 42~44	세경본풀이(작자 미상)
2024 실시 6월 학평 31~34	D 01~04	왕시전(작자 미상)
2024 실시 3월 학평 29~32	D 67~70	이춘풍전(작자 미상)
2023 실시 11월 학평 42~45	D 28~31	임호은전(작자 미상)
2023 실시 9월 학평 39~42	D 13~16	정각록(작자 미상)
2023 실시 6월 학평 29~32	D 05~08	장국진전(작자 미상)
2023 실시 3월 학평 43~45	D 36~38	금방울전(작자 미상)
2022 실시 11월 학평 42~45	D 45~48	화산기봉(작자 미상)
2022 실시 9월 학평 39~42	D 56~59	숙향전(작자 미상)
2022 실시 6월 학평 26~28	D 83~85	수궁가(작자 미상)
2022 실시 3월 학평 42~45	D 71~74	춘향전(작자 미상)
2021 실시 11월 학평 33~36	D 32~35	정비전(작자 미상)
2021 실시 9월 학평 42~45	D 17~20	태원지(작자 미상)
2021 실시 6월 학평 29~32	D 79~82	흥부전(작자 미상)
2021 실시 3월 학평 42~45	D 75~78	토공전(작자 미상)
2020 실시 11월 학평 16~19	E 18~21	임진록(작자 미상)
2020 실시 9월 학평 42~45	D 21~24	최현전(작자 미상)
2020 실시 6월 학평 26~28	D 53~55	영영전(작자 미상)
2020 실시 3월 학평 35~37	D 39~41	최고운전(작자 미상)
2019 실시 11월 학평 42~45	D 49~52	송부인전(작자 미상)
2019 실시 9월 학평 42~45	D 60~63	서해무릉기(작자 미상)
2019 실시 6월 학평 38~40	D 64~66	매화전(작자 미상)
2019 실시 3월 학평 42~45	D 09~12	신유복전(작자 미상)
2018 실시 9월 학평 27~29	D 25~27	석화룡전(작자 미상)

〈현대 수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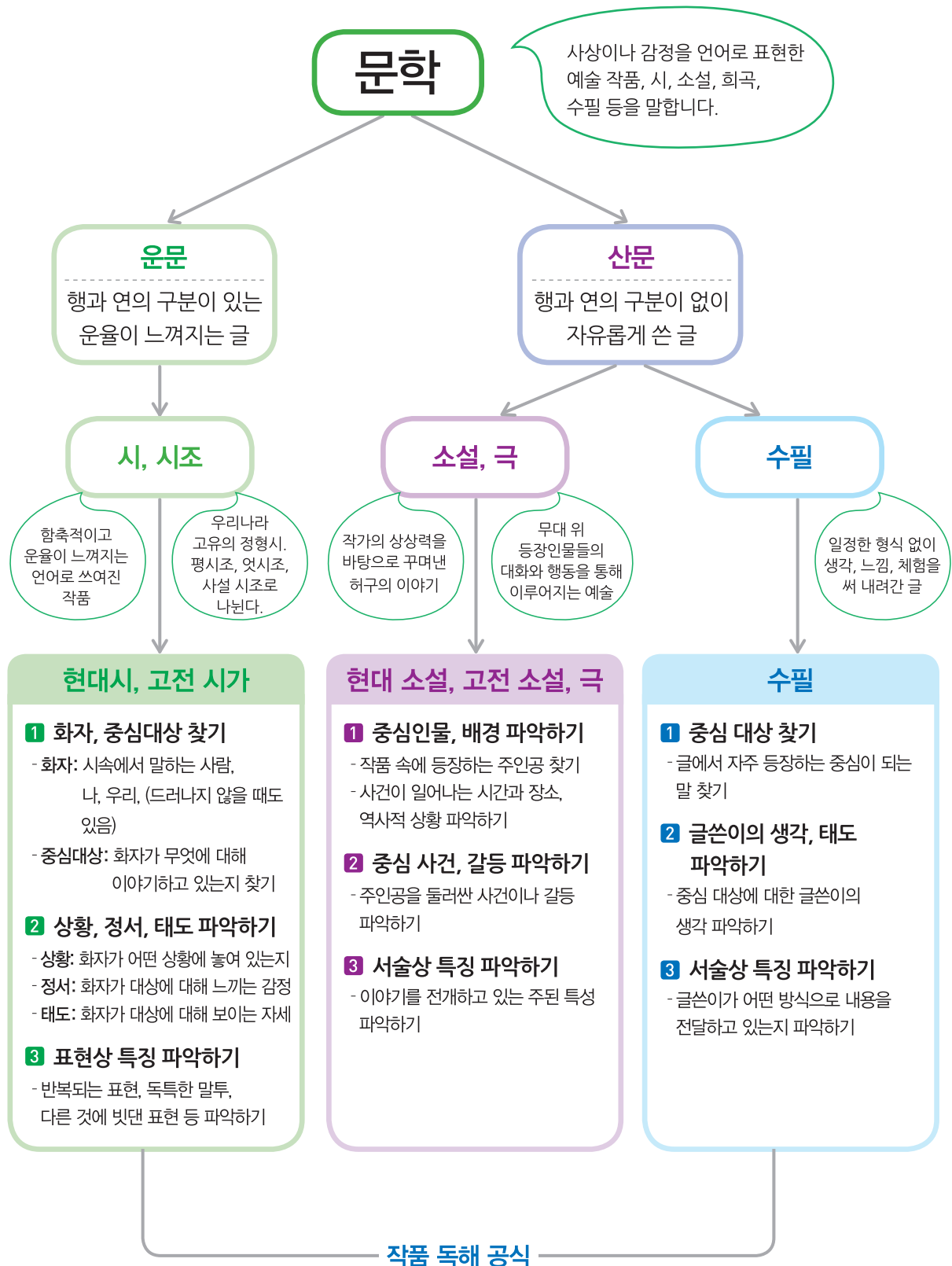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4 실시 6월 학평 35~39	B 77~81	입춘(백석)
2023 실시 9월 학평 16~20	B 82~86	태안사 가는 길에서(공선옥)
2023 실시 6월 학평 33~37	B 72~76	세한도(목성균)
2023 실시 3월 학평 23~27	B 91~95	돌탑과 잔돌(문태준)
2022 실시 11월 학평 34~37	B 96~99	화춘의장(이효석)
2022 실시 9월 학평 26~29	B 68~71	관찰야(장영희)
2022 실시 3월 학평 34~37	B 01~04	가재미·나귀(백석)
2021 실시 11월 학평 42~45	B 87~90	여행(김기림)
2021 실시 9월 학평 34~37	B 55~58	향기 있는 사람(신석정)
2021 실시 3월 학평 38~41	B 59~62	인형과 인간(법정)
2020 실시 3월 학평 22~26	B 63~67	꽃 출석부 1(박완서)
2019 실시 9월 학평 34~38	B 109~113	길의 열매 집을 매단 골목길이며(함민복)
2018 실시 11월 학평 38~41	B 105~108	비슷한 얼굴-계수님께(신영복)

〈고전 수필〉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4 실시 9월 학평 38~42	B 46~50	조설(남구만)
2023 실시 11월 학평 35~38	B 51~54	청학동기(이인로)
2022 실시 6월 학평 32~35	B 38~41	주몽설(권근)
2021 실시 6월 학평 38~42	B 24~28	접목설(한백겸)
2020 실시 9월 학평 21~25	B 100~104	떠 있는 삶(정약용)
2020 실시 6월 학평 42~45	B 29~32	이옥설(이규보)
2019 실시 11월 학평 38~41	B 42~45	봄의 단상(이규보)
2019 실시 6월 학평 41~45	B 33~37	어부(이옥)

〈극문학〉

기출문제 출처	문제수록 번호	작품명(작가명)
2024 실시 3월 학평 44~45	E 01~02	그게 아닌데(이미경)
2022 실시 6월 학평 41~45	E 13~17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문열 원작 · 박종원 각색)
2020 실시 11월 학평 16~19	E 18~21	명량(전철홍 · 김한민)
2019 실시 3월 학평 39~41	E 03~05	대장금(김영현 각본)
2018 실시 3월 학평 34~36	E 06~08	말아톤(정윤철 외)
2017 실시 3월 학평 41~42	E 09~10	뿌리깊은 나무(김영현 · 박상연)
2016 실시 11월 학평 38~39	E 11~12	보석과 여인(이강백)



“ 자이스토리만의 특별한
작품 독해 공식으로 공부하면
 국어 문학 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



A

현대시

- 1 성찰이나 의지가 드러나는 시
- 2 추억과 회상, 그리움을 담은 시
- 3 자연과 생명, 사랑을 그린 시

★ 현대시

1910년대 후반에 정형시의 울격을 벗어난 자유시로서의 현대시가 등장하였다. 현대시는 시인이 살아간 시대적 상황에 따른 주제 의식을 보이며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해 왔다. 현대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작품을 분리해서 수록했다.

★ 독해 공식

현대시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기 위한 3단계 공식으로 어떤 난이도의 작품이라도 스스로 독해할 수 있게 했다.

★ 현대시

독해 공식

-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문제 유형별 특강

최신 학평 출제 경향을 분석하여 현대시 지문과 함께 출제되는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제시했다. 특강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문제에 접근하면 고난도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① 작품 비교하기

(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②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작품에서 선택지에 제시된 표현 방법이 사용된 부분 찾기

③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하기

화자가 처해 있는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④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시적 흐름에 따라 시어,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⑤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보기>를 먼저 읽고, (가) 혹은 (나) 감상하기

★ 최신 3개년 고1 학력평가 출제 경향

실시연도	출제 지문	난이도
2024	3월 (가)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김기택) (나) 두암육가(김약련)	**
	6월 (가) 적막한 식욕(박목월) (나) 찬밥(문정희)	**
	9월 (가) 위로(윤동주) (나) 달밤(황동규)	***
	11월	
2023	3월 (가) 고향의 천정 1(이성선) (나) 밤물 눈금(손택수)	**
	6월 (가) 소년(윤동주) (나) 나무의 꿈(손택수)	***
	9월 (가) 천수답(박목월) (나) 민들레꽃(이형기)	***
	11월 (가) 청산백운도(신석정) (나) 새 옷 입는 법(문정희)	**
2022	3월 (가) 사개 틀린 고향의 툇마루에(김영랑) (나) 따뜻한 달걀(정진규)	***
	6월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나)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함민복)	*
	9월 (가) 광야(이육사) (나) 울타리 밖(박용래)	***
	11월 (가) 봄(김광섭) (나) 겨울 들판을 거닐며(허형만)	**

★ 2024년 출제 경향 및 분석

- 3월 학평: 김기택의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가 고전 시가 <두암육가>와 함께 출제되었다.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 까다로운 편이었다.
- 6월 학평: 박목월의 <적막한 식욕>이 문정희의 <찬밥>과 함께 출제되었다. 두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을 묻는 문항이 까다로운 편이었다.
- 9월 학평: 윤동주의 <위로>와 황동규의 <달밤>이 함께 출제되었다. 두 작품 모두 길이는 짧지만 해석이 쉽지 않아 문제의 정답률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 최근 학평에서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작가의 낯선 작품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 낯선 작품들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자주 출제되는 작가들의 작품 경향을 학습해 두자.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며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가 시의 주요 내용입니다.

*** 시 독해 공식 적용하기**

- ①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 표시하기
- ②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밑줄 긋기
- ③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괄호 치기

현대시 쉽게 읽는 법:

화자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에 주목하기

고전 시가 쉽게 읽는 법:

소리 내어 읽으며 발음이 비슷한 현대어 떠올려 보기

화자와 중심 대상 찾기

[A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3 실시 9월 학평 27~29 (고1)]

(가) 어메야,

복(福)이 따로 있나.

독심 세고

부지런하면 사는거지,

하늘이 물을 대는 천수답(天水畓)*

그 논외 벼이삭.

니 말이 정말이데,

엄첩구나*

내 새끼야,

팔자가 따로 있나

본심 가지고

부지런하면 사는거지.

어메야,

누군 한 평생 / 만년을 사나.

허둥거리지 않고 / 제 길로 가면 그만이지.

오냐, / 내 새끼야,

니 말이 엄첩구나. / 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딴노.

제 길 가면 그만이지.

수련거리는 감잎 사이로

별떨기 빛나는 밤하늘.

그 하늘의 깊이.

— 박목월, 〈천수답(天水畓)〉

* 천수답: 빗물에 의하여서만 벼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논

* 엄첩구나: '대견하구나'의 경상도 방언

(나) 짝그만 것이

노랑게 노랑게

전력을 다해 셋노랑게 피어 있다

아무 곳도 넘보지 않는다

다만 혼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바위 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터를 잡고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

열심히 열심히 한 댕새

세상에 그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랑게 노랑게만 피는 꽃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

짝그만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서도 져 수 없다

아 민들레!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한 댕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고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 있다

— 이형기, 〈민들레꽃〉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A02 ✿✿✿ 2023 실시 9월 학평 28(고1)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작지만 온 힘을 다해 선명한 빛깔로 피어 있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B]에는 다른 공간은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한계 안에서 홀로 애쓰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C]에는 씨가 뿌려진 비좁은 곳을 자신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터를 잡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D]에는 강한 의지와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E]에는 꽃을 피웠지만 세상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기 위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시에는 삶을 대하는 가치 있는 태도가 담겨 있다. (가)에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열악한 농토를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 여기며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려는 소신과 그에 대한 지지가 드러나 있다. (나)에는 민들레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허무에 맞서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과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① (가)에서 '천수답'을 일구는 삶을 '제 길'이라고 여기는 것은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려는 소신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니 말이 정말이데', '니 말이 엄침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메'가 '내 새끼'에게 보내는 지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③ (가)에서 '누군 한 평생 / 만년을 사'냐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그 크기는 / 어떤 자로서도 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나)에서 '덧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는 모습을 '헛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민들레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맞서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낸 것이겠군.



1st 먼저 제목과 문제의 <보기>를 읽고 지문의 내용을 파악한다.

- **제목:** (가)에서는 천수답(天水畓)에 대해서, (나)에서는 민들레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문제 <보기>:** (가)와 (나)에는 삶을 대하는 가치 있는 태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A03 <보기> 분석

- (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 →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려는 소신과 그에 대한 지지
- (나): 민들레를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허무에 맞서는 존재로 바라봄.
+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

★ 현대시

독해 공식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 **화자:** 지문 속 '나', '우리'는 화자를 가리킨다.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중심 대상:** 제목 혹은 반복되어 나타나는 시어가 중심 대상인 경우가 많다.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보다', '만나다' 등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 **정서:** '좋다', '슬프다' 등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한다.
- **태도:** 긍정적 · 부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한다.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화자의 어조, 비유적 표현, 시상 전개 방식 등 지문에 어떠한 표현상 특징이 드러나 있는지 살펴본다.

예 역설법, 단호한 어조, 수미상관

2nd (가)에 독해 공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가)의 1연, 3연은 '니(=내 새끼)'가 화자이다.

'어메'에게 부지런하게 살면 '천수답'에도 '벼이삭'이 열린다고 말하고 있다.

(가)의 2연, 4연은 '어메'가 화자로, '니(=내 새끼)'의 말을 옳다고 여기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가)의 중심 대상은 '천수답'이다.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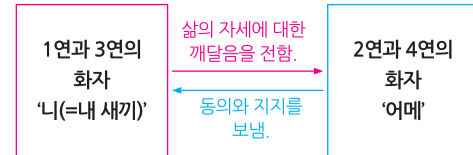
- **상황:** (가)의 화자 '니(=내 새끼)'는 1연에서 '뚝심 세고 / 부지런하면 사는거지'라면서 자신이 깨달은 삶의 자세를 '어메'에게 말하고 있다. 또 3연에서 '허둥거리지 않고 / 제 길로 가면 그만이지'라면서 소신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어메'에게 말하고 있다.
- **정서, 태도:** (가)의 화자 '어메'는 2연과 4연에서 '엄첩구나'라면서 '니(=내 새끼)'의 말을 옳다고 여기며 대견해하고 있다.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1연과 3연의 '어메야', 2연과 4연의 '내 새끼야'에서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또한 두 명의 화자를 설정하고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었다.

- 1연과 3연에서 '어메야', 2연과 4연에서 '엄첩구나', '내 새끼야', 3연과 4연에서 '그만이지'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1연의 '복이 따로 있나.', 2연의 '팔자가 따로 있나', 3연의 '누군 한 평생 / 만년을 사나.', 4연의 '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딴노'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4연의 '수런거리는 감잎 사이로 / 별떨기 빛나는 밤하늘.'에서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배경을 묘사하고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4연의 '그 하늘의 깊이.'에서 시상을 명사로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 (가)의 핵심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해 본다.



(가)의 화자 '니(=내 새끼)'는 '어메'에게 자신이 깨달은 긍정적이고 근면하게 사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고, 화자 '어메'는 '니(=내 새끼)'의 말에 동의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가)의 **주제**는 '긍정적이고 근면하게 사는 삶의 태도'이다.

3rd (나)에 독해 공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

1 화자, 중심 대상 찾기

(나)의 화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나)의 화자는 '민들레꽃'을 관찰하여 민들레꽃의 생명력과 내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중심 대상은 '민들레꽃'이다.

2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파악하기

- **상황:** (나)의 화자는 1연에서 '노랗게 노랗게 / 전력을 다해 셋노랗게 피어 있'는 민들레꽃을 관찰하고, 5연에서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민들레꽃의 운명을 인식하고 있다.
- **정서, 태도:** 6연에서 '그 크기는 / 어떤 자로서도 져 수 없다'고 하면서 민들레꽃이 가진 내적 가치를 예찬하고 있다.

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1연의 '노랗게 노랗게', '셋노랗게'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민들레꽃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1연에서 '노랗게', 4연에서 '열심히', 5연에서 '꽃'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2연의 '아슬아슬'에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민들레꽃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4연의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에서 대구법을 활용하여 민들레꽃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 6연의 '야 민들레!'에서 영탄법을 활용하고,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 있다'에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민들레꽃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에서 역설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나)의 핵심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리한다.



(나)의 화자는 민들레꽃을 관찰하고 있으며, 민들레꽃이 가진 생명력과 내적 가치를 깨닫고 이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주제**는 '민들레꽃의 모습과 민들레꽃이 지닌 내적 가치'이다.

4th 왜 두 작품?

	(가)	(나)
공통점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냄.	
차이점	대화체를 활용하여 자식과 어머니를 화자와 청자로 설정함. →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냄.	화자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민들레꽃을 관찰함. → 주제 의식을 도출함.



문제 풀이 특강

A01 작품 비교하기 < (가)와 (나)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기 >

[① 57% ② 18% ③ 4% ④ 8% ⑤ 11%]

(가)와 (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가)와 (나)에서 어떤 표현상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한다.

- ① (가)는 1연과 3연에서 '어메야를, 2연과 4연에서 '엄침구나', '내 새끼야'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화자의 깨달음과 이에 대한 공감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1연에서 '노랑게, 4연에서 '열심히, 5연에서 '꽃', 6연에서 '민들레'를 반복하여 '민들레꽃'이 가진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답은 ①이다.
- ② (가)는 4연의 '수련거리는 감잎 사이로 / 별떨기 빛나는 밤하늘.'에서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나)는 1연의 '노랑게 노랑게'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민들레꽃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는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지 않았다.
- ③ (나)는 6연의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 있다'에서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민들레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지 않았다.
- ④ (나)는 2연의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에서 음성 상징어 '아슬아슬'을 활용하여 민들레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지 않았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을 활용하지 않았다.

A02 시어 및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 시적 흐름에 따라 시어,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

[① 2% ② 2% ③ 4% ④ 4% ⑤ 86%]

(나)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 ① [A]에는 '찌그만' 민들레가 선명한 빛깔로 '셋노랑게 피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② [B]에는 '아무 곳도 넘보지 않'으면서 다른 공간은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꽃을 피우기 위해 홀로 애쓰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C]에는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위 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라도 '내 자리'로 받아들이고 '터'를 잡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④ [D]에는 강한 의지와 생명력으로 '물을 길어 올리'고 '어둠을 힘껏 밀어내'면서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E]에는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꽃을 피우는 것을 자신의 '할 일'로 받아들이고 '노랑게 노랑게' 꽃을 피우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자신이 할 일을 찾기 위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민들레는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꽃을 피워 냈으므로 답은 ⑤이다.

A03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 <보기>를 먼저 읽고, (가)와 (나) 감상하기 >

[① 14% ② 19% ③ 6% ④ 5% ⑤ 5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 → 열악한 농토를 축복의 땅이라 여김. -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려는 소신과 지지가 드러남.
(나)	- 민들레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남. -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맞서는 민들레의 내적 가치를 긍정함.

① (가)에서 농사를 짓기 열악한 땅인 '천수답'을 '하늘이 물을 대는' 땅이라고 하며 '뚝심 세고 부지런하면' '그 논이 벼이삭'으로 살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며 '천수답'을 일구는 삶을 '제 길'이라고 여기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려는 소신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② (가)에서 '어메'는 '내 새끼'의 말에 '니 말이 정말이데', '니 말이 엄침구나'라고 대답하며 '내 새끼'의 말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어메'가 '내 새끼'에게 보내는 지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③ (가)의 '누군 한 평생 / 만년을 사나'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아무도 만년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인간이라면 유한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이 드러난 부분이다.

④ (나)에서 민들레를 '찌그만 것'으로 크기는 작지만 '어떤 자로서도 져 수 없다'고 하면서 민들레가 작은 외양과는 달리 내적 가치는 가능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 부분이다.

⑤ 댕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는 모습을 '헛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피어나도 질 수밖에 없는 민들레의 운명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답은 ⑤이다.

특강 ☆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유형 - 풀이 순서

- ① <보기>에 제시된 작품 정보 파악하기
- ② 작품에서 <보기>에 제시된 작품 정보와 관련된 부분 찾기
- ③ 작품과 선택지를 연관 지어 파악하기



Ⅰ 성찰이나 의지가 드러나는 시

내신 + 학평 대비 기출문제



제한 시간 4분

[A04 ~ 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모밀묵이 먹고 싶다.

그 싱겁고 구수하고

못나고도 소박하게 점잖은

촌 잔칫날 팔모상에 올라

새사돈을 대접하는 것.

그것은 저문 봄날 해질 무렵에

허전한 마음이

마음을 달래는

쓸쓸한 식욕이 꿈꾸는 음식.

또한 인생의 참 뜻을 짐작한 자의

너그럽고 넉넉한

눈물이 갈구하는 쓸쓸한 식성.

아버지와 아들이 점상을 하고

손과 주인이 점상을 하고

산나물을

곁들여 놓고

어수룩한 산기슭의 허술한 물방아처럼

슬금슬금 세상 얘기를 하며

먹는 음식.

그리고 마디가 굵은 사투리로

은은하게 서로 사랑하며 어여뻐 여기며

그렇게 이웃끼리

이 세상을 건느고

저승을 갈 때,

보이소 아는 양반 양inki요

보이소 옷마을 이생원 양inki요

서로 불러 길을 가며 쉬며 그 마지막 주막에서

걸걸한 막걸리 잔을 나눌 때

절로 젓가락이 가는

쓸쓸한 식욕.

— 박목월, 〈적막한 식욕〉

(나) 아픈 몸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는다

찬밥 속에 서릿발이 목을 쏘신다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일 분만 단추를 눌러도 ㉠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지만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가족에겐 ㉡ 따스한 밥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

이 빠진 그릇에 찬밥 훑어

누가 남긴 무 조각에 생선 가시를 훑고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뿜던 그녀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락거리던 그 손이 그리워

나 오늘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의 찬밥이 되어

— 문정희, 〈찬밥〉

★ (가) 현대시 독해 공식

- ① 화자: () , 중심 대상: ()
- ② 화자의 상황: ()
- 정서, 태도: ()
- ③ 표현상 특징: ()

★ (나) 현대시 독해 공식

- ① 화자: () , 중심 대상: ()
- ② 화자의 상황: ()
- 정서, 태도: ()
- ③ 표현상 특징: ()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형태로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청자를 겉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촉각적 심상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시적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향토적 분위기가 드러나는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어려운 상황 속 화자의 이상을 실현해 주는 것이다.
- ② ㉡은 시적 대상의 희생 없이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다.
- ③ ㉠은 ㉡과 달리 화자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것이다.
- ④ ㉡은 ㉠과 달리 시적 대상의 가치 있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 ⑤ ㉠은 과거의 기억 속에, ㉡은 현재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문학에서 음식은 일상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정서를 환기하는 소재로 활용된다. (가)에는 모밀묵을 매개로 형상화된 삶의 모습을 떠올리며 인생의 허전함과 쓸쓸함을 달래고 싶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나)에는 화자가 아플 때 혼자 찬밥을 먹었던 경험에서 어머니의 희생적 삶을 깨닫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정서가 드러난다.

- ① (가)에서 모밀묵은 ‘촌 잔칫날’ ‘새사돈’을 대접하는 음식으로 소박한 속성을 지닌 것이지만 귀한 사람에게도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겠군.
- ② (가)에서 ‘슬금슬금 세상 얘기를 하며’ 모밀묵을 함께 먹는 모습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허전함을 달래고 싶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이웃끼리’ ‘저승’에 갈 때 ‘마지막 주막에서’ 메밀묵을 먹는 것을 통해 현실에서 느낀 쓸쓸함을 화자가 극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군.
- ④ (나)에서 ‘누가 남긴 무 조각에 생선 가시를 훑’는 모습을 회상하며 어머니가 보여줬던 희생적 삶을 깨닫고 있군.
- ⑤ (나)에서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 모습을 통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사전적 의미 이해하기

[01-20] 다음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발발하다 공허하다 직시하다 추이 부대끼다
 삽시간 을씨년스럽다 궁지 아연하다 정체성
 대동하다 객지 대변하다 연상하다 파국
 비하하다 평정 색출 개키다 조명하다

- 01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그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하다. ()
- 02 매우 짧은 시간 ()
- 03 살살이 뒤져서 찾아냄. ()
- 04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
- 05 일이나 사태가 잘못되어 결판이 남. 또는 그 판국 ()
- 06 사람이나 일에 시달려 크게 괴로움을 겪다. ()
- 07 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있는 곳 ()
- 08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 ()
- 09 전쟁이나 큰 사건 따위가 갑자기 일어나다. ()
- 10 평안하고 고요함. 또는 그런 상태 ()
- 11 아무것도 없이 텅 비다. ()
- 12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다. ()
- 13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 ()
- 14 어떤 대상을 일정한 관점으로 바라보다. ()
- 15 너무 놀라거나 어이가 없어서 또는 기가 막혀서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 하는 상태이다. ()
- 16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거느려 함께하다. ()
- 17 사물의 진실을 바로 보다. ()
- 18 업신여겨 낮추다. ()

- 19 보기에 날씨나 분위기 따위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 ()
- 20 일이나 형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여 나감. 또는 그런 경향 ()

* 헛갈리는 의미 정확히 알기

[21-40] 다음의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괄호 안에서 고르시오.

- 21 땅이 걸고 기름지다. (비옥하다, 비대하다)
- 22 길, 다리, 철로, 전화, 전신 따위가 완성되거나 이어져 통하게 되다. (개시되다, 개통되다)
- 23 휩쓸어 죄다 없애 버림. (중탕, 소탕)
- 24 차분하고 평온하다. (담담하다, 섭섭하다)
- 25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폐기, 폐단)
- 26 함부로 가까이 범하여 접촉하다. (범접하다, 범상하다)
- 27 속에 품고 있는 참뜻. 또는 진짜 의도 (의의, 진의)
- 28 가장 좋은 대책이나 방책 (상책, 술책)
- 29 관련이 있는 상황이나 사실 따위가 서로 이어지다. (관철되다, 점철되다)
- 30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 (학술, 학대)
- 31 스스로 인정하다. (자인하다, 자수하다)
- 32 같은 편이 되어 일을 함께 하거나 돕다. (가열하다, 가담하다)
- 33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 (멸시, 소멸)
- 34 비교 대상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 따위가 아주 다르다. (판단하다, 판이하다)
- 35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 (관행, 관심)
- 36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치게 되다. (교차되다, 교환되다)
- 37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하다. (유도하다, 시도하다)
- 38 어떤 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 자세 따위가 미리 갖추어져 차려지거나 그렇게 되게 함. 또는 그 물건이나 자세 (채비, 채무)



7

- ㉠ **가관** [可 ㉠을 가 觀 볼 관]

꼴이 불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
- ㉡ **가담** [加 더할 가 擔 댐 담]하다

같은 편이 되어 일을 함께 하거나 돕다.
예) 적을 공격하는 일에 **가담**하는 사람이 나날이 늘어났다.
- ㉢ **가르마**

이마에서 정수리까지의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갈랐을 때 생기는 금
- ㉣ **가정** [假 거짓 가 定 정할 정]하다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하다.
- ㉤ **각별** [各 각각 각 別 다를 별]하다

어떤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따위가 유달리 특별하다.
예) 이 물건은 옮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각인** [刻 새길 각 印 도장 인]되다

머릿속에 새겨 넣듯 깊이 기억되다.
- ㉦ **간간** [間 사이 간 間 사이 간]이

시간적인 사이를 두고서 가끔씩
- ㉧ **간신** [艱 어려운 간 辛 매울 신]히

겨우 또는 가까스로
- ㉨ **감정 이입**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하여 마치 대상이 화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쉼다
화자의 감정 이입의 대상
- 허난설헌, <규원가>
- ㉩ **갈기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 등을 주먹이나 채찍 따위를 휘둘러 때리거나 치다.
- ㉪ **감내** [堪 견딜 감 耐 견딜 내]하다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 내다.
- ㉫ **감복** [感 느낄 감 服 입을 복]하다

감동하여 충심으로 탄복하다.
- ㉬ **감흥** [感 느낄 감 興 일어날 흥]

마음속 깊이 감동받아 일어나는 흥취
- ㉭ **강조** [強 강할 강 調 고를 조]하다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하다.
- ㉮ **강행** [強 강할 강 行 다닐 행]하다

강제로 시행하다.
- ㉯ **강호** [江 강 강 湖 호수 호]

예전에, 은자(隱者)나 시인(詩人), 묵객(墨客) 등이 현실을 도피하여 생활하던 시골이나 자연
- ㉺ **강화** [強 강할 강 化 될 화]하다

수준이나 정도를 더 높이다.

- ㉻ **개입** [介 끼일 개 入 들 입]되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게 되다.
- ㉼ **개진** [開 열 개 陳 늘어놓을 진]하다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글로 쓰다.
예) 발표자가 **개진**하고 있는 의견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 ㉽ **개키다**

옷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
예) 자고 일어난 자리의 이불을 잘 **개켜서** 치워 두었다.
- ㉾ **개통** [開 열 개 通 통할 통]되다

길, 다리, 철로, 전화, 전신 따위가 완성되거나 이어져 통하게 되다.
- ㉿ **객관적** [客 손님 객 觀 볼 관의 관념 적]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것
- ㊀ **객지** [客 손님 객 地 땅 지]

자기 집을 멀리 떠나 임시로 있는 곳
- ㊁ **거나하다**

술 따위에 취한 정도가 어지간하다.
- ㊂ **거동** [擧 들 거 動 움직일 동]

몸을 움직임. 또는 그런 짓이나 태도
- ㊃ **거북하다**

몸이 찌뿌드드하고 괴로워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자유롭게 못하다.
- ㊄ **거사** [擧 들 거 事 일 사]

큰일을 일으킴.
- ㊅ **거처** [去 갈 거 處 곳 처]

이미 갔거나 현재 가거나 미래에 갈 곳
- ㊆ **거처** [居 살 거 處 곳 처]하다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살다.
- ㊇ **검거** [檢 검사할 검 擧 들 거]되다

범죄의 예방이나 수사 등을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용의자가 일시적으로 억류되다.
- ㊈ **격동** [激 과격할 격 動 움직일 동]

감정 따위가 몹시 흥분하여 어떤 충동이 느껴짐. 또는 그렇게 느낌.
- ㊉ **견해** [見 볼 견 解 풀 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
예) 두 사람의 **견해** 차이로 회의가 길어졌다.
- ㊊ **결렬** [決 결정할 결 裂 찢을 렬]되다

교섭이나 회의 따위에서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각각 갈라지게 되다.
예) 노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 **결박** [結 맺을 결 縛 묶을 박]하다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동여 묶다.
- ㊌ **결백** [潔 깨끗할 결 白 흰 백]하다

행동이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조출하여 아무런 허물이 없다.

- ㊍ **결의** [決 결정할 결 意 뜻 의]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음. 또는 그런 마음
- ㊎ **결핍** [缺 이지러질 결 乏 가난할 핍]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람.
예) 그는 식사를 걸러 영양 **결핍**으로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다.
- ㊏ **겸비** [兼 겸할 겸 備 갖추 비]하다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
예) 그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다.
- ㊏ **경계** [警 경계할 경 戒 경계할 계]하다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하다.
- ㊐ **경과** [經 경서 경 過 지나 과]

시간이 지나감.
- ㊑ **경물** [景 경치 경 物 만물 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
- ㊒ **경의** [敬 공경할 경 畏 두려워할 의]감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
- ㊓ **경작** [耕 밷갈 경 作 지을 작]하다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다.
- ㊔ **경합** [競 다투 경 爭 합할 합]

서로 맞서 겨룸.
- ㊕ **경향** [傾 기울 경 向 방향 향]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 **계기** [契 맺을 계 機 틀 기]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 ㊗ **계책** [計 꾀할 계 策 꾀 책]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꾀나 방법을 생각해 냄. 또는 그 꾀나 방법
- ㊘ **고결** [高 높을 고 潔 깨끗할 결]하다

성품이 고상하고 순결하다.
- ㊙ **고고** [孤 외로울 고 高 높을 고]하다

세상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
- ㊚ **고달프다**

몸이나 처지가 몹시 고단하다.
- ㊛ **고봉** [高 높을 고 峯 봉우리 봉]

높은 산봉우리
- ㊜ **고수** [固 굳을 고 守 지킬 수]하다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키다.
예) 그는 10년 째 같은 머리 모양을 **고수**한다.
- ㊝ **고심** [苦 괴로울 고 心 마음 심]하다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쓰다.
- ㊞ **고이다**

물 따위의 액체나 가스, 냄새 따위가 우묵한 곳에 모이다.